

자연 언어의 창조성

정 계 섭

1. 들어가는 말

자연 언어는 각 단계가 고유한 구성 원리를 지니는 계층 구조 *structure hiérarchique*를 이루고 있다. 전세계에 걸쳐 3,500~4,000여 가지에 이르는 자연 언어의 기본음을 이루는 음소의 총수는 50여 개에 불과하다. 이는 사람이 가진 조음 기관의 생리학적 제한에 기인한다. 개별 언어는 이 중에서 20개 내외의 음소를 선택하는데 이 음소들은 이보다 훨씬 적은 수의 변별적 특성 *traits pertinents*을 결합한 결과이다. 하나의 음소와 다른 음소간의 불연속성 *discontinuité*이 인간 언어의 음성과 동물의 분해할 수 없는 소리를 구분해주는 근본적인 특성으로서 바로 이 특성이 다음 단계의 결합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불연속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언급할 것이다.

불연속적인 단위들의 결합이 음절 내지는 형태소 *morphème*를 만드는데 이때 결합의 방식이 각 언어의 음운 체계를 형성하며 여기에서 결합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법칙을 연구하는 것이 음운론의 대상이다. 예컨대 불어에서 세 개의 자음이 연속적

으로 출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뿐으로서 그것도 낱말의 전반부나 중반부에서만 가능하다.

$$s + \left\{ \begin{matrix} t \\ p \\ k \end{matrix} \right\} + \left\{ \begin{matrix} r \\ l \end{matrix} \right\}$$

불어에는 이중 모음이 없고 두 개의 모음이 연속적으로 나타날 때 앞의 모음이 반모음화되는 현상이 있다. 이렇게 개별 언어는 자신의 고유한 음운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선형적으로 연역할 수 없고 다만 경험적 자료에 의해 귀납적으로 가능한 결합과 불가능한 결합을 분간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음운론의 법칙은 다른 수준의 법칙과는 무관하다.

형태소 그 자체 또는 형태소들의 결합이 단어를 만드는데, 불과 20여 개의 음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단어의 수는 무한정 *indefini* 하며 여기에서 우리는 자연 언어의 첫번째 창조성의 근원을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이 단어들의 결합이 문장을 생성하는데 이에 대한 창조성의 문제는 해당 장에서 취급하겠다. 물리학적 표현이 허용된다면, 음소가 원자적 성격을 지녔다면 단어는 분자적 성격을 지닌 것이고 문장은 거시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다.

문장들의 집합이 문단 *paragraphe*을 형성하고 이어서 문단들의 집합이 담화 *discours* 내지는 이야기 *récit*를 구성한다. 문장의 경계를 넘어서면 ‘담화 문법’ 또는 ‘텍스트 문법’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들어서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두 문장의 연쇄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여기에는 빈도 수가 가장 많은 등위 관계를 비롯하여 동의문 관계 *relation de paraphrase*, 예시 *exemplification*, 인과 관계 *relation causale*, 연대 관계 *relation chronologique* 등 담화 형성의 중요한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러한 메커니즘 역시

창조성의 근원을 이룬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으로 그치고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차후로 미룰까 한다. 이에 대신해서 화용론적 관점에서 우리에게 창조성의 원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몇 가지 사실을 취급할 것이다.

현재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한 기호학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방법론적인 관점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언어 기호의 창조성에 대한 탐구는 비언어적 기호학을 하는 연구자들에게 무언가를 시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악보의 경우, 수평적으로는 멜로디가 수직적으로는 화음 *accords*이 있어서 언어학의 방법론이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다.

2. 어휘적 생산성

I. 형태소

불어는 굴절어 *langue flexionnelle*로 분류될 수 있지만, 통시론적 관점에서 교착 *agglutination* 현상도 단어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 특수한 형태소의 집합이 있는데 바로 접사 *affixe*로서 불어에서는 접두사 *préfixe*와 접미사 *suffixe*가 있으며 라틴어에서처럼 접중사 *infixe*는 없다. 접사에 대한 지식은 어휘 능력을 몇 배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주목받을 만하다.

그런데 접사는 단지 낱말의 형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inappréciable’이나 ‘richissime’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절대 최상급 *haut degré*의 표현에 쓰일 뿐 아니라 상 *aspect*과 관련된 문법 범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불어에서 ‘re-’는 3가지 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로, ‘abattre’와 ‘abaisser’가 지속상 *duratif*인 데 비하여 ‘rabattre’나 ‘rabaïsser’는 순간상 *instantané*을 지시한다. 다음으로 ‘redire’

나 'refaire' 에서처럼 반복상 *itératif*을 지시하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으로 'recourir' 'remercier' 'ramasser' 'recueillir' 'renfermer' 'rentrer' 등은 어떤 행동의 결과만을 고려하는 완료상 *perfectif*의 예들이다. 반복상과 완료상을 혼동하면 난센스가 발생한다.

토끼: 그러면 차 좀 드시죠.

알리스: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마셨는데요.¹⁾

여기에서 're-'는 반복의 의미가 아니라 차 마시는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는 권유일 따름이다. 한편, 접미사의 경우 '-ir'는 'jaunir' 'blanchir'에서처럼 어떤 상태로의 점진적인 진입을 가리키는 기동상 *inchoatif*을 나타내고 있다.

접사의 생산성은 그들 사이에도 결합이 가능하다는 사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div> <div>접미사</div> <div>접두사</div> </div>	-er	-ir	-iser
a-	affiner	affaibli	amenuiser
é-	éclairer	élargir	∅
en-	enivrer	endurcir	∅
ra-	raffiner	rajeunir	rapetisser

모든 접두사나 접미사의 결합 가능성과 불가능성에서 어휘학자는 어떤 규칙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것이다.

1) Lewis Carroll, *Tout Alice*(Trad. par H. Parisot), Flammarion, 1979, p. 153.

Le Lièvre: "Reprenez donc un peu de thé."

Alice: "Je n'ai encore rien pris du tout."

II. 어휘의 가연성 *ductilité*

브레알은 그의 책에서 “동사는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²⁾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상 모든 단어는 추상 *abstraction*과 일반화 *généralisation*의 결과로서 우리는 모든 단어가 일반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말하고자 한다.

아주 평범한 ‘maison’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보도록 하자. 현대는 획일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한 나라에는 지방마다 고유한 주택 양식이 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주거 양식의 차이는 말할 것도 없다. 단 한 채의 집에서도 이 집을 대문에서 보는가 후문에서 보는가 더욱이 상공에서 보는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이런 차이를 사상 *abstraction*하고 일반화시켜 간단히 ‘집’이라는 한 단어로 그 수많은 집들을 지시한다.

어휘의 근본적 추상성 외에 다의성 *polysémie* 현상을 빠뜨릴 수 없는데 금방 생각나는 ‘ordre’ ‘fort’ ‘prendre’ ‘mettre’ ‘tenir’와 같은 단어들은 대략 20여 가지의 의미로 통용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가족 유사성 *ressemblance familiale*’ 또는 그리즈 J. B. Grize의 ‘의미의 발전기 *générateur de sens*’를 환기하게 된다. 문제는 가족 유사성이나 의미의 발전기에 어떤 속성을 부여하는가에 있다. 이 문제는 80년대 이래 꾸준히 논의되어온 것으로서 어휘 의미론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동사의 경우, ‘~을 만족시키다 *satisfaire quelque chose*’나 ‘~을 들어주다 *satisfaire à quelque chose*’에서처럼 목적보어 앞에 전치사의 유무에 따라서 직접 타동사의 기능과 간접 타동사의 기능을 각각 수행하며, ‘~에 집착하다 *tenir à quelque chose*’나 ‘~와 닮다 *tenir de quelqu'un*’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떤 전치사가 오느냐에

2) Michel Bréal, *Essai de sémantique*, Gérard Monfort, 1982, p. 108.

따라서 의미가 변화하는데, 우리에게 이러한 언어의 경제성은 곧 바로 창조성과 상통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가 주목한 이 모든 사례들은 어휘의 가연성에 속하는 성질들로서 베르그송은 이를 자연 언어의 가장 현저한 특징으로 본다.

그 수가 유한한 기호들이 무한한 사물에 확대 해석될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하다.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옮겨가는 기호의 이러한 성향은 인간 언어 활동의 특성이다.³⁾

언어 기호의 이러한 기동성 *mobilité*은 불어의 경우 모두가 짐작할 수 있듯이 'se'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거의 모든 동사와 결합하여 새로운 동사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도구가 아닐 수 없다. 발리는 'se'에서 상 *aspect*과 법 *mode*의 차이를 잘 지적하고 있다.⁴⁾ '물 속에 잠기다 *plonger dans l'eau*'에서 자동사는 무의지적인 행위를 나타내고 '물 속에 뛰어들다 *se plonger dans l'eau*'에서는 시작 *début*에서 고려되는 의지적인 행위를 나타낸다.

3. 통사적 차원

I. 조합 *combinatoire*으로서의 자연 언어

불어에서 가장 빈도 수가 많은 다음과 같은 하나의 통사적 구조를 검토해보도록 하자. 각 요소의 아래에 제시한 숫자는 해당 집

3) Il faut un langage dont les signes — qui ne peuvent pas être en nombre infini — soient extensible à une infinité de chose. Cette tendance du signe à se transporter d'un objet à un autre est caractéristique du langage humain (Henri Bergson, *Evolution Créatrice*, p. 172).

4) Ch. Bally, *Linguistique générale et linguistique française*, p. 314.

합 원소의 대략적인 갯수이다.

Dét.	N1 de N2		Adj.	V	Dét.	N	Adj.
20	10^3	10^2	10^3	$4 \cdot 10^3$	20	10^3	10^3

'N1 de N2'에서 N2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이러한 결합 구조는 보다 큰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간단한 조합의 원리에 의해 가능한 문장의 수는 16×10^{30} 으로서, 10개 정도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을 두 사람이 발화할 때 그 문장이 같아질 확률은 극히 드문 것이다. 이 숫자는 물론 이론적 숫자로서 경험적으로 가능한 문장의 수는 줄어든 것이다. 그래서 문법이란 규칙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제약 체계 *système de contraintes*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언어를 조합으로 환원하는 것은 순전히 수학적인 접근 방식으로서 연구의 출발점으로만 유용하다. 언어를 사회적이고 인간적인 현상으로 고찰하고 특히 의미 문제를 배제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례가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통합적 *syntagmatique* 차원에서 어떻게 하나의 표현이 문맥에 따라서 상이한 의미를 가지며, 다른 한편으로는 계열적 *paradigmatique* 차원에서 상이한 표현이 대체 가능한 *substituable* 집합에 속하는가를 보이고자 한다. 이러한 변화는 창조성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소쉬르적인 의미에서 의미 작용 *signification*과 가치 *valeur*의 개념을 도입하겠다. 상기하자면, 의미 작용은 기표 *signifiant*과 기의 *signifié*의 결합에서 유래하는 것이고, 가치는 하나의 기호와 나머지 다른 기호들간의 차이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의미 *sens*란 의미 작용과 가치 모두를 포섭하는 개념인데 의미 작용이 정확하면 서도 빈곤한 데 반하여 의미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회적 실천 *pratique sociale*과 연관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겠다. 다음은 발레리가 제공한 예이다.⁵⁾

종이 떨어졌다.		줄이 끊어졌기 때문이다.
개가 되돌아왔다.	왜냐하면	배가 고팠기 때문이다.
그가 그것을 말했다.		어리석기 때문이다.

‘parce que’는 서로 전혀 다른 3가지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문맥의 확장적 역할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고립된 수준에서의 의미 작용과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문맥에서의 의미를 분명하게 보게 한다. 이러한 현상은 고립적인 것이 아니고 아주 일반적인 현상으로서, 문맥에 따라서 ‘père’는 때로는 생물학적 사실을, 때로는 권위를 상징하는 사회적 사실을, 나아가서 프로이트와 관련된 심리적 사실을 지시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의미적 동치 관계 *relation d'équivalence*를 보여주는 사례를 검토해보기로 하자.⁶⁾

연금술사는 납을 금으로	바꾸기를	원했다.
	변형시키기를	
	변화시키기를	

주어진 문장의 구조에서 동일한 위치에 나타날 수 있는 낱말들은 동일한 계열에 속하며 이때의 집합을 동치류 *classe d'équivalence*

5) Paul Valéry, *Cahiers I*, Gallimard, 1973, p. 450.

La cloche est tombé		la corde s'est rompue.
La chien est revenu	parce que	il avait faim.
Il a dit cela		il est un sot.
6) L'alchimiste voulait	changer	le plomb en or.
	métamorphoser	
	convertir	

라고 한다.⁷⁾ 이 개념은 하리스 Harris의 담화 분석에서 방법론적 핵심을 이루고 있다.

하나의 표현이 상이한 의미를 지니기도 하고, 반대로 여러 가지 표현이 동일한 의미를 지니기도 하는 이런 현상들은 어떻게 보면 역설 *paradoxe*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역설이 언어의 표상력 *puissance de représentation*을 제고하는 데 일조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발화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화자는 한 계열내의 여러 요소 중에서 꼭 필요한 요소만을 선택하여 이를 결합축상의 한 자리로 투사시킨다. 이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장치의 메커니즘은 창조성의 핵심으로서 아직도 온전히 신비로 남아 있으며, 심리언어학이나 인지과학이 풀어야 할 커다란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로서는 다만 조합이 가능토록 하는 두 가지 배경을 제시하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자연 언어의 문장은 단위 요소들로의 분할 *découpage*이 가능하며, 이는 곧 요소들은 상호간에 불연속적이라는 점을 함축한다. 불연속의 개념은 현대 물리학⁸⁾과는 관계없이 언어학에서도 독자적으로 발견한 개념으로서, 전혀 다른 두 분야

7) 대체 연산 *opération de substitution*은 물론 언제나 의미를 보존하지는 않으며, 흥미로운 것은 언어학 이전에 이런 연산을 활용했다는 사실이다. 한명희는 '압구정'이라는 호화스런 정자를 세우고 노후를 즐기면서 다음과 같이 읊었다고 전해진다.

靑春扶社稷 白首臥江湖(젊어서는 사직을 받들고 늙어서는 자연에 누워 유유자적한다)

이에 매월당 김시습은 '扶'를 '亾'으로, '臥'를 '汚'로 대체했는데 이렇게 되면 "젊어서는 나라를 망치고 늙어서는 자연을 오염시킨다"라는 의미가 된다.

8) 우리 눈에 연속적으로 보이는 빛이 사실은 광자 *photon*이라고 하는 빛의 기본 단위의 다발이라는 것이 플랑크와 아인슈타인에 의해 제창되었고, 플랑크의 식 $E=hv$ 는 이를 나타내는 식으로 이후 양자역학 발전의 기폭제가 되었다.

에서 발견한 개념들이 내용상의 일치를 보인다는 것은 인식론적 관점에서 보건대 또 하나의 확을 긋는 사건으로 여겨진다.

새나 영장류에 있어서 의사 소통의 단위는 구체적이고 특수한 하나의 상황에 대응하는 오직 한 가지 방식의 메시지, 즉 인간 언어로 말하자면 문장이 된다. 이런 문장은 보다 기본적인 단위로 분해될 수 없으며 그래서 재구성 *reconstitution*이 불가능하다. 인간 언어의 불연속성은 새로운 결합을 가능케 해주는 요인으로서 이는 언어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⁹⁾

조합을 가능하게 해주는 두번째 요인으로서 위치 *position*의 역할을 들 수 있겠다. 우리가 0에서 9까지의 10개의 숫자를 가지고 어떤 정수라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이른바 위치 기수법 *numération deposition* 덕분이다.

프레게의 합성 원리 *compositionalité*에 의하면 전체의 의미는 부분들의 의미와 부분들의 결합된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 결합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위치로서, 간단한 예를 들자면, 순서쌍 *couple ordonné*의 두 원소간에 대칭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위치의 문제에 직결된다. 일 자리에 오는 수가 그 밖의 어떤 자리에도 올 수 있듯이, 우리는 원한다면 ‘고양이가 쥐를 먹는다 *Le chat mange la souris*’라는 문장을 ‘쥐가 고양이를 먹는다 *La souris mange le chat*’로 변형할 수 있다.¹⁰⁾ 이는 앞서 말한 재구

9) 다른 한편, 불연속의 개념은 언어철학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제까지 형식적 차원을 고려한 데 비하여 의미적 차원의 불연속을 생각해보기로 하자.

froid - 0 - tiède - 0 - chaud

자연 언어는 필연적으로 의미의 사각 지대 *angle mort*를 내포하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것이 표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불연속적인 도구로 연속적인 현실 *réalité*을 묘사하는 데 과연 충분할 것인가? 시인의 작업과 조각가나 화가의 작업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후자는 형태와 색깔에 있어서 거의 연속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10) 언어 속에 이미 상상이나 환상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성과도 상통하는 것으로서, 위치는 말하자면 언어 기호가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겠다. 언어에서 담당하는 위치의 기능은 기수법에서 보다 훨씬 복잡하며 언어학은 언젠가 위치 이론 *théorie des positions*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조합의 원리 이외에도, 켈리오리가 변형성 *déformabilité*이라고 부르는 개념은 언어의 창조성을 탐구하는 우리의 목표에 부합한다. 언어는 규칙에 따라서 조작되는, 변형에 아주 적합한 유연성 있는 기호 체계인 것이다. 그래서 앞서 검토한 대체 *substitution*나 치환 *permutation* 이외에도 첨가 *addition*, 삭제 *omission*, 법 *mode*의 변형, 동의문 관계 *relation de paraphrase* 등은 주어진 형태를 가지고 새로운 형태를 산출한다는 점에서 창조성과 무관할 수 없는 조작 *opération*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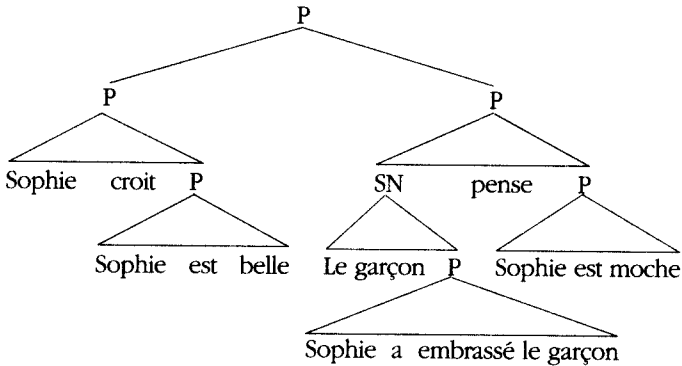
II. 귀환성 *récurtivité*

가장 큰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는 이치나 마찬가지로 어떤 언어의 문장이든간에 가장 긴 문장은 있을 수 없다. 이 말은 문장의 집합은 무한하다는 말이나 같은 의미이다. 그 이유는 언어의 귀환성에 있는데 규칙의 적용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규칙의 수와 어휘를 가지고 무한히 많은 문장을 생성할 수 있는 것이다.

구조 규칙 *règles syntagmatiques*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귀환성이란 왼쪽에 나온 기호가 오른쪽에도 나타나는 현상인데, 아래의 예는 P가 귀환적으로 도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begin{array}{lll} P & \rightarrow & P \quad \text{et} \quad P \\ SN & \rightarrow & (\text{Det}) N (P) \\ SN & \rightarrow & V (SN) (P) \end{array}$$

이때 P를 귀환 요소라 하며 예를 들어 이런 규칙은 다음과 같은 문장을 생성시킬 수 있다.



귀환성에는 좌귀환성 · 우귀환성 · 끼워넣기 *emboîtement*가 있으며 붙어는 우귀환성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¹¹⁾ 물론 이 세 가지가 혼합된 문장도 있을 수 있다. 프루스트의 작품에 나오는 긴 문장들은 귀환성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때까지 알려진 가장 긴 문장은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에 나오는 823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이라고 한다.

우리는 앞에서 조합의 원리에 의한 강력한 생성력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유한한 세계에서의 일이다. 어떤 상태에서 어휘의 수는 무한일 수 없으며, 어휘의 조합의 결과로부터 나오는 수가 아무리 엄청나다 할지라도 결국은 유한하기 때문이다. 귀환성이야말로 문장의 집합이 무한하다는 사실을 보장해주는

11) 각각의 예는 다음과 같다.

- i) une vieille petite dame.
- ii) le collègue du cousin de l'ami de la femme du patron.
- iii) le rat que le chat que le chien a chassé a tué a mangé le fromard.

장치인 것이다.

4. 화용론적 차원

I. 사고의 범주와 문법의 범주

전통 문법은 문장의 양식을 서술문·의문문·명령문·감탄문 등으로 분류하고, 사실을 묘사하는 데 서술문이, 질문하는 데에 의문문이 그리고 명령하는 데 명령문이 쓰인다는 식으로 단순한 설명을 하고 있다. 우리는 비트겐슈타인의 『철학 탐구』 이래 이러한 설명이 수정을 요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서술문은 명령이나 주문, 이 밖에도 다양한 언어 행위를 나타내는 데 쓰이며, 의문문의 경우 가정¹²⁾이나 가장된 단언 *assertion déguisée* 등 역시 여러 가지 행위를 나타내는 데 쓰이며, 그래서 언어학은 ‘의문문의 논리 *logique érotétique*’를 필요로 한다. 가르디 역시 명령문은 적어도 4가지, 즉 설교적 *prédicatif*, 장려적 *hortatif*, 자문적 *consultatif*, 초대적 *invitatif* 등의 다른 양식을 동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¹³⁾

우리는 이제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장의 양식은 제한적인 데 반하여 가능한 언어 행위의 수는 무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비트겐슈타인이 생활 형태 *formes de vie*와 언어 놀이 *jeu de langage*간에 밀접한 관계를 설정했다는 사실을 상기하는 것은 이해에 보다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사고의 범주와 문법 범주간에 1:1 대응 관계를 수립하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시제에서도 관찰되는 아주 보편적인 사실

12) 예를 들어 “Veux-tu ce chien? Il est à toi”의 경우 질문을 한다기보다는 가정 *hypothèse*을 나타내고 있다.

13) J. L. Gardies, *Esquisse d'une grammaire pure*, Vrin, 1975, p. 163.

로서 예컨대 반과거는 시간적 관점에 대해서는 중립적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제의 일이나 마찬가지로 몇백 년 전의 사건도 반과거를 가지고 기술할 수 있는 것이다.

문법 범주를 가지고 다양한 사유의 범주를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유연성이야말로 자연 언어의 특징들 중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II. 유추 *analogie*

어떤 새로운 상황에 처해서 우리는 흔히 이미 알려진 상황을 참조하여 그것을 이해하려고 한다. 유추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알려진 주제의 기본적인 구조를 미지의 주제에 투사하는 것인데, “X는 Y와 유사하므로, X에 관해서 참인 것은 Y에 관해서도 참이다”와 같은 추론 방식을 말한다.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유추법이 어린이가 모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카시어는 이에 관해 아주 흥미있는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¹⁴⁾

우리의 예를 위해서 세르반테스의 『동 키호테』를 들겠는데 이 작품은 잘못된 유추를 통하여 희비극적인 효과를 자아내고 있다.

동 키호테 / 기사 ≃ 하녀 / 여왕

이 식을 (동 키호테, 기사, 하녀, 여왕)과 같이 4원소의 집합으로 보고 도식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다시 (a, b, c, d)라고 표현해보자. 그리고 여기에 조합의 원리를 적용하면 하나의 유추 문장으로

14) 코를 고집스럽게 후비는 아이를 ‘obstine’라고 표현한 노래 가사를 들은 4살 난 소년이, 손가락을 고집스럽게 빼는 것은 ‘obstibouche’라고 함으로써 훌륭한 유추적 사고를 하고 있다(Cassier, “Le langage et la construction du monde des objets,” in *Essais sur le langage*, p. 75).

부터 $4 \times 3 \times 2 = 24$ 개의 다른 유추 문장을 생성시킬 수 있다.

물론 이 24개의 문장 중에는 비적형식인 문장 *énoncé mal formé* 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판별하는 일은 때로 쉬운 문제가 아니어서 섬세하고도 미묘한 언어적 직관 *intuition linguistique*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이를 ‘아원자적 수준의 의미 *sens au niveau subatomique*’로 부르기를 제안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때 적형식과 비적형식에 대한 관점이 형식적으로 *formellement*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a, b, c, d의 성질에 따라서 변화 *variation*한다는 사실이다. 위의 예를 “언어학과 인문과학의 관계는 수학과 자연과학의 관계와 같다 *La linguistique est aux sciences humaines ce que la mathématique est aux sciences de la nature*”와 비교해보면 이런 주장을 확인할 수 있을 터인데 창조성의 관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5. 결론에 대신하여

이제까지 어휘론적·통사론적 그리고 화용론적인 차원에서 언어의 생산성과 다산성, 한마디로 창조성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특히 불연속성에 의해 재결합이 가능하다는 점과 문장의 집합이 무한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언어의 속성은 베르그송이 『창조적 지성』에서 말하는 지성의 특징에 그대로 적중한다.

지성은 어떠한 법칙에 따라서든 분해하고 또한 어떠한 체계로는 재구성하는 무한한 능력으로 특징지어진다.¹⁵⁾

15) L'intelligence est caractérisée par la puissance indéfinie de décomposer selon n'importe quelle loi et de recomposer en n'importe quel système (Bergson, *ibid.*, p. 628).

문장의 수가 무한하다는 사실이 왜 중요한가?

우리는 언어의 창조성은 과학의 발전에 토대가 된다고 생각한다. 브로노프스키의 말대로 과학의 발전이 “단어와 단어의 결혼”이라고 볼 적에 언어의 자유자재한 융통성은 과학의 발전을 수용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그래서, 신호 체계가 기존의 사실을 기존의 신호로 나타내는 데 반하여, 기호 체계에서는 기존의 기호로 미지의 사실을 표상할 수 있는 것이다.

출발점에서 볼 때, 아무리 난해한 과학적 사유라 할지라도 자연 언어의 표상 체계와 무관할 수는 없으며, 도착점에서 볼 때 과학의 언어는 궁극적으로 자연 언어로 환원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언어는 과학의 전(前)과학이다 *La langue est l'avant-science de la science*”¹⁶⁾라는 기욤의 말은 실로 심오한 통찰이 아닐 수 없으며, 우리는 멀지 않은 장래에 이러한 인식론적 기호학이 만개하기를 기대한다. [덕성여자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참 고 문 헌

- Bally, Charles, *Linguistique générale et linguistique française*, 4 éd. Berne, A. Francke, 1965.
- Bertraud, Jacques et al., *Art et science : de la créativité*, 10/18, 1972.
- Bréal, Michel, *Essai de sémantique*, Gérard Monfort, 1982.
- Chevalier, Jean-Claude et Gross, Maurice (présentation), *Méthodes en*

16) Recueil de textes inédits préparé en collaboration sous la direction de Roch Valin, principes de linguistique théorique de Gustave Guillaume, Klincksieck, 1973, p. 246.

- grammaire française*, Klincksieck, 1976.
- Culioli, Antoine, *Pour une linguistique de l'énonciation*, Opérations et représentations, Tome I, Ophrys, 1992.
- Félix, Lucienne, *L'aspect moderne des mathématique*, Albert Blanchard, 1957.
- Gardies, Jean-Louis, *Esquisse d'une grammaire pure*, Vrin, 1975.
- Halpern, Diane F., *Thought and Knowledge*, LEA, 1989.
- Koestler, Arthur, *The act of creation*, A Laurel Edition, 1967.
- Wittgenstein, Ludwig,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A Blackwell Paperback, 1978.
- Lefebvre, Henri, *Le langage et la société*, Gallimard, 1966.